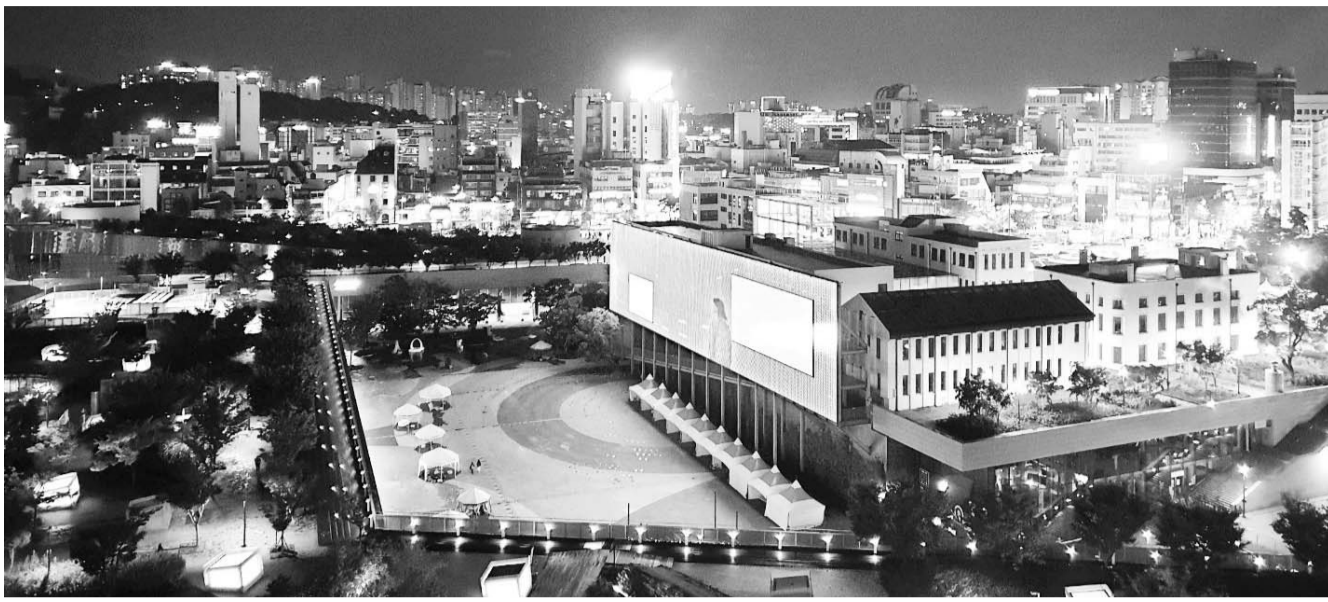


ACC 4주년...세계적 문화발전소 발돋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년간 688건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창작·제작 콘텐츠 78%
경제효과·문화향유 만족도 ↑
전당·문화원 이원체제 해결 시급



25일로 개관 4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적 문화기관으로 발돋움 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 무대리 이진식)이 25일로 개관 4주년을 맞았다.

ACC는 지난 4년간 공연 200건 등 총 688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관람객은 연간 250만 명 등 총 971만 명(10월 말 현재)에 이를 만큼 세계적인 문화발전소로 발돋움했다.

올 연말까지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ACC가 문화와 아시아를 잇는 세계적인 문화기관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다. 특히 대규모 잔디 옥상정원 '하늘마당'은 매년 100여 만명이 찾는 광주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는 점도 큰 소득이다.

그러나 현재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통합 외에도 문화전당의 전당장 공백 장기화, 전당장 직급 상향, 킬러 콘텐츠 부재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히 ACC운영을 현재의 '일부 위탁'에서 '전부위탁'으로 결정하는 시기가 내년 4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통합방식은 문화전당 위상이나 지역발전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향유 증진 기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올해 발표한 ACC 운영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 전당 개관, 운영(2016~2018년)으로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 뿐 아니라 문화향유와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

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 생산 유발효과 8430억 원 ▲ 부가가치 유발효과 6157억 원 ▲ 취업 유발효과 1만629명이다.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 ACC 개관 전후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과 여가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람률과 여가 만족도가 각각 4.2%, 4.5% 증가했다. 국민 여가만족도가 최근 2년 동안 1.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실형적 문화콘텐츠 창·제작 플랫폼으로 안착

ACC는 지난 4년간 공연 200건, 전시 113건, 교육 111건, 축제 37건, 각종 행사 207건 등 총 668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ACC가 기획하거나 창·제작한 콘텐츠는 522건으로 78%에 달한다. 특히 미디어아트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대회이자 페스티벌인 '2019 국제전자 예술신포지움'을 지난 6월 개최해 창 의도

시 광주를 세계에 소개한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성과는 ACC가 운영하는 통합 레지던시 콘텐츠 창·제작 과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년간 레지던시에 참여한 작가 603명이 200종에 이르는 ACC 콘텐츠를 창·제작했으며, 국내 41개·국의 21개 문화예술 기관 등과 62건에 이르는 MOU도 체결했다.

지역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창·제작에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관객참여형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창작스토리 공모를 모티브로 한 '시간을 질하는 사람'은 호평 속에 시범공연을 마쳤다.

◇킬러콘텐츠 부재, 통합문제 과제 ACC는 지난 4월 초 킬러 콘텐츠로 '무사: 불멸의 영웅들'을 시범 공연했다. 박시 부인전 설화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공연극으로 오는 12월 연말에 정식 공연을 앞두고 있다. 무사가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당장이 장기 공석이라는 점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ACC는 개관 후 사람과 지역, 아시아 문화를 잇는 가고 역할을 수행했지만 아직까지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 인지도는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전당의 활성화 방안은 물론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5·18 정신이 국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ACC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제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전당이 아시아문화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관리·감독하는 현 체제는 사업의 유사 중복, 기관 간 갈등 등이 불거질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체부와 광주시는 지난 10월 정책협의회를 통해 위탁 운영 5년 연장안을 논의한 바 있다. 향후 통합을 비롯한 위탁 운영 연장 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알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

광주일보사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국신문협회·사랑의열매와 함께 연말연시 성금모금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성금접수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아래 성금 모금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성금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모금기간 : 2019년 11월 20일(수) ~ 2020년 1월 31일(금)
- 계좌번호 : 광주은행 053-107-999990
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광역시지회 (062-222-3566)
농협 617-01-162651
예금주 : 전라남도공동모금회 (061-902-6800)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chest.or.kr) 기부상담 전화 080-890-1212

光州日報社 · 한국신문협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고 싶은 섬’ 신안 기점·소악도 손님맞아 건축미술 작품 설치...식당·게스트하우스 등 새단장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인 신안 기점·소악도가 9번째로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단장해 지난 23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전남도는 24일 “기점·소악도가 순례자의 섬이라는 주제에 맞는 건축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마을식당과 게스트하우스 등 기초시설을 마무리해 손님을 맞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도는 16곳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해 주민이 살고 싶고, 여행자가 가고 싶은 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강진 가우도, 여수 낭도, 고흥 연흥도, 완도 생일도 등 8개 섬이 문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김용배 신안군

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역 주민, 출향 향우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가고 싶은 섬 개장을 축하했다.

기점·소악도는 병풍도의 새끼섬으로, 대기섬도, 소기섬도, 소악도, 진섬 등 4개 섬으로 이뤄져 노들길로 하나가 되는 섬이다. 기점·소악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존지역이다. 섬 모양이 기묘한 점 모양의 섬이어서 기점도, 섬 사이를 지나는 물소리가 크다 해 소악도라 불린다.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에 두 번 썰물 때만 드러나는 노들길로 이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순례자의 섬이라는 콘텐츠를 갖춘 기점·소악도가 세계적으로 대박나는 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신축공사 감리업체 입찰 공고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입찰공고에 이어 지난 22일 공장건설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전기·소방 및 정보통신분야별 관련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업, 전력시설물 종합·전문업체 및 정보통신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신고필한 자, 자동차 관련 공장 감리 실적업체이다. 감리업체 입찰 참가는 단독 또는 공동

모금이 가능하다. 광주·전남 지역업체의 의무 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1, 2대 주주로 참여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한 완성차공장을 지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구자 1000여 명을 고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고 같은 해 9월 양산 목표를 갖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해야”

정치권 무관심속 7개 법령 계류중...올해 통과 안되면 사실상 자동폐기

자치분권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정치권의 무관심에 발이 묶이면서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은 7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안인 국가사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넘겨졌으나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또 31년만에 개정이 추진돼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 환경과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개월째 손을 놓다 지난 14일 법안소위에 지방자치법을 심사 법안으로 올렸으나 전문위원의 보고만 있었을 뿐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자치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명성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안들이 정치권의 무관심과 정쟁에 뒤로 밀려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치권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라도 지방자치를 위한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도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여야 정치권이 시대적 사명을 갖고 조속히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키앙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지 266-7601
	동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앙 222-9054	중앙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내천 376-7153	치평 376-6511	동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 품양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영암 월출산 부근 땅 703㎡ 전원생활할합 6600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완도읍 망석리 전방 좋은 자연녹지산 3306㎡ 휴양시설 등 적합 1억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가능 2억
- 목포시 외월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좋은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북구 두암동 버스도로점 2중 주거지 960㎡ 건물 신축 좋음 19억
- 서구 마복동 도로점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동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동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능 33억
- 나주시 다시면 광곡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청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남) 8232㎡ 주위조경좋은 8억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양 좋은 1억3천

상가건물

- 운양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아파트부근 6m 도로점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시속 적합 15억천
- 운양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인 2억 청고 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유동 신축커뮤니티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 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빌링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구례군 구례읍 서치천변(경의면) 11050㎡ 다세대 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좋은 6억4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나주시 남대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